

대만지진현황보고 및 긴급기도요청

2018년 2월 10일(화) 대만 금철 선교사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대만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니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화) 밤 11:50 대만 동부 화리엔(花蓮)에서 발생한 리터규모 6.1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17인 사망했습니다. 그 중 5인은 대만사람, 9인은 중국대륙사람, 2인은 캐나다 국적의 싱가포르인, 1인 필리핀입니다. 부상자는 276인으로 9개 병원에 분산 치료 중입니다. 구출된 사람은 4개 건물에서 231인이며 아직 실종된 5인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현재 지진 후 3일이 지나면서 구조대원의 희생적인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건물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날씨가 추워서(영상 10도) 생존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만은 기부와 돕는 선한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교회와 선교사회도 함께 재난현장을 찾아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 훈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련의 4동의 건물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2006년 2월 6일(토) 새벽에 남부 타이난(臺南)에서 6.4 지진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무너져서 1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지금 동일한 날짜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비극적인 우연입니다.



대만현지의 선교사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현지의 교회들도 재난 중
평안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진으로
아파트 전체가 많이 흔들려 서있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2~3일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강진과 여진이
이어지다 보니 단층에 세워진 건물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타이퐁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긴장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는 대만 땅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봅니다. 환난 당한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주님의 위로하심과
공휼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2018년 2월 10일

대만 타이퐁(台中)에서 금 철 백은영
선교사 올림